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2월 10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이호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, 김양지 사무관(02-2110-4870)		

IEA 수석이코노미스트, 세계에너지전망 발표

- 인구·소득 증가로 에너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
- 중동·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석유의존 지속, 천연가스도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
- 원전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이 중요, 원전축소시 기후변화 대응의 어려움 증가

* 국제에너지기구(IEA, International Energy Agency)는 에너지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로, '74년에 설립되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, 28개 회원국이 가입

□ IEA 수석 이코노미스트, 파티 비롤(Fatih Birol) 박사는 '세계에너지전망*' 보고서를 통해 미래 에너지의 모습을 진단

* 세계에너지전망(World Energy Outlook, WEO)은 IEA가 매년 발간하는 장기 전망 보고서

○ 세계 경제·에너지부문의 불확실성은 높으나, 소득과 인구 증가로 미래 에너지수요가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단언

○ 중동·아프리카 지역이 상당기간 전세계 석유공급을 담당하면서 석유공급국의 다변화는 줄어들고, 러시아의 가스·석유 수출이 아시아로 확대되는 가운데, 천연가스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

○ 원전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경우, 에너지수입비용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, 기후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평가하면서 원전안전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

□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IEA 파티 비롤 박사를 초청하여 2.10(금), COEX에서 '세계에너지전망 세미나'를 개최

○ 파티 비롤 박사는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서의 총책임자로, '95년부터 OPEC와 IEA에서 오랜 기간 에너지시장 분석을 담당

○ 그간 세계 에너지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, 미국 에너지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상을 수여받았으며, 금년 1월, 다보스포럼에서는 에너지 분과의 의장을 수행하는 등 국제 에너지 전문가로 활동 중

□ 이번 세미나에서 파티 비롤 박사는 중국의 제12차 5개년 계획* 발표,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주요국의 정책과 시장환경을 반영하여 '35년까지 에너지원별 수급·교역 변화 등에 관한 분석결과를 발표

* 2015년까지 에너지원단위 16% 감소, GDP대비 CO_2 배출량 17% 감축을 목표로, 非화석연료 비중 확대와 천연가스와 원자력·신재생 보급에 중점

① (수요) 중국, 인도 등 신흥국 경제성장으로 '35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는 33% 증가하며, 가스, 신재생이 수요증가분의 67%를 공급

② (석유) 향후 25년간 이라크가 사우디를 제치고 제1의 석유생산국으로 등극하며,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'35년까지 석유생산증가의 90%를 공급

* 석유생산순위('10~'35년, 누적) : ①이라크, ②사우디, ③브라질, ④캐나다, ⑤카자흐 등

③ (천연가스) 비전통가스가 가스공급증가량의 40%를 차지하며, 비전통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

④ (원자력) '35년 원전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, 석탄,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*하고,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6.2% 증가

* 현재 호주 유연탄 수출량의 2배, 러시아 천연가스 순수출규모의 67%가 증가

⑤ (러시아) 러시아의 석유, 가스 수출대상국은 유럽에서 중국 등 아시아지역으로 다변화

* 유럽 수출액비중: ('10) 77%→('35) 63% / 중국 수출액비중: ('10) 2%→('35) 20%

⑥ (온실가스) '35년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까지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3/4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,

- 2017년까지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면 코펜하겐 합의(지구온도 2℃ 이내로의 상승 억제) 이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

□ 지식경제부는 '러시아 가스수출국 다변화에 대한 조명, 원전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파티 비롤 박사의 견해는 러시아산 가스 도입을 추진하고 원전안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국 에너지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'고 평가하고,

○ '이번 세미나를 통해 에너지기업과 관계자들이 경영전략 수립과 투자, 해외 시장 진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'고 언급

참고1 세미나 개요

□ 행사개요

○ 행사명 : 2011 세계에너지전망 세미나

○ 일시/장소 : '12.2.10(금) 10:00~11:30 / COEX 컨퍼런스룸 318호

○ 발표자 : Fatih Birol 수석이코노미스트* (IEA Chief Economist)

*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서 총책임자로 OPEC, IEA 등을 두루 걸친 국제적으로 저명한 에너지전문가, '12.1월 다보스포럼에서 에너지분과 의장직을 수행(국적: 터키)

○ 참석자 : 지식경제부, 허경욱 주OECD대사,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, 에너지기업·유관기관, 주한대사관 등 200여명

□ 프로그램(안)

일시	세부내용	발표자/참석자
10:00~10:15	개회사(5분) 환영사(5분) 축 사(5분)	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지식경제부 허경욱 주OECD대사
10:15~10:20	WEO 증정 및 사진촬영	
10:20~10:30	커피브레이크	
10:30~11:10	2011 WEO 발표	Fatih Birol 수석 이코노미스트
11:10~11:30	질의응답	참석자

* 한-영 동시통역 제공 / 사회 에너지경제연구원

참고2 IEA 개요

□ 설립

○ 제1차 석유파동 직후 석유공급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IEP협정*에 따라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설립된 에너지협력기구('74.11월)

* IEP(International Energy Program) 협정 : IEA의 설립근거가 되는 조약으로서 1974년 11월 파리에서 16개국 대표들이 작성

□ 회원국 현황(총28개국)

○ 최초회원국(16개국) : 오스트리아, 벨기에, 캐나다, 덴마크, 서독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일본, 룩셈부르크, 네덜란드, 스페인, 스웨덴, 스위스, 터키, 영국, 미국

○ 추가회원국(11개국) : 뉴질랜드, 노르웨이, 그리스, 호주, 포르투갈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, 체코, 한국('02.3월), 슬로바키아('07.3월), 폴란드('08.9월)

□ 가입조건

○ OECD 회원국 중 전년도 일평균 석유순수입물량 기준으로 최소 90일분의 석유비축물량 확보의무를 충족

□ IEA의 역할

○ 에너지시장 전망
- 에너지원별 수급전망, 지역별 에너지생산 패턴과 에너지교역 등 중·단기, 장기 에너지시장 분석과 전망

○ 석유위기에 대한 공동대응
- 석유비축, 수요억제 및 석유시장 정보체제 유지 등 석유공급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유지 및 개선 담당

○ 에너지정책 검토
- 회원국들의 에너지 정책이 IEA의 공통목표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방향을 권고

○ 연구 협력
- 에너지기술의 연구, 개발 및 보급 등 기술부문의 협력을 지원